



連載 [11]

잃어버린 古代都市

Ⅺ 「바벨탑」은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었을까

지그라트의 소용돌이 형태의 탑 頂上에는 반드시 성단이 마련되어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神에게 바친 건물이었다는 사실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째서 이처럼 높은 장소에 성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싸인 채로 있었다.

考古學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低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반복되는 범람으로 말미암아 洪水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성단을 미리 높은 곳에 설치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說明이 유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功利的인 해석에는 이렇다할 實証的인 뒷받침이 없고 어디까지나 想像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近代에 와서야 비로소 과학적인 발굴 조사의 進歩와 더불어 이미 기원전 4천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인은

높은 테라스 위에도가 神殿을 세우는 습관을 가졌으며 그리고 기원전 4천년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高台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階層도 증가되었다는 것이 明白해졌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비롯한 지그라트는 突然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높은 테라스 위의 神殿」에서 서서히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바빌로니아 시대에 들어 와서야 人間은 하늘 높은 곳까지 도달하려는 願望을 처음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神聖한 것」과 「높은 곳」을 同一한 하나의 意味로써 느끼기에 이르렀다는 것.

그들이 탑을 3층·4층, 나아가서는 6층·7층으로 쌓아 올리게 된 진정한 동기는 바로 그러한 데에 있었던 것이다. 지그라트란, 人間이 昇天하기 위해서 「거대한 디딤돌」이며 동시에 神을 希求하고 神에게 영원히 接近하려고 하는 人間の 衝動을 物理

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神에 接近하려고 하는 人間の 願望은 그칠 줄을 모르고 어느 사이에 그것이 人間の 교만으로 발전하여 드디어는 神의 노여움을 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사이의 사정에 대해서는 「바벨탑」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有名케 하고...』 여호와께서 人間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로써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地面에 흩으시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포기했더라.〉 (창세기 제11장)

〈心象〉